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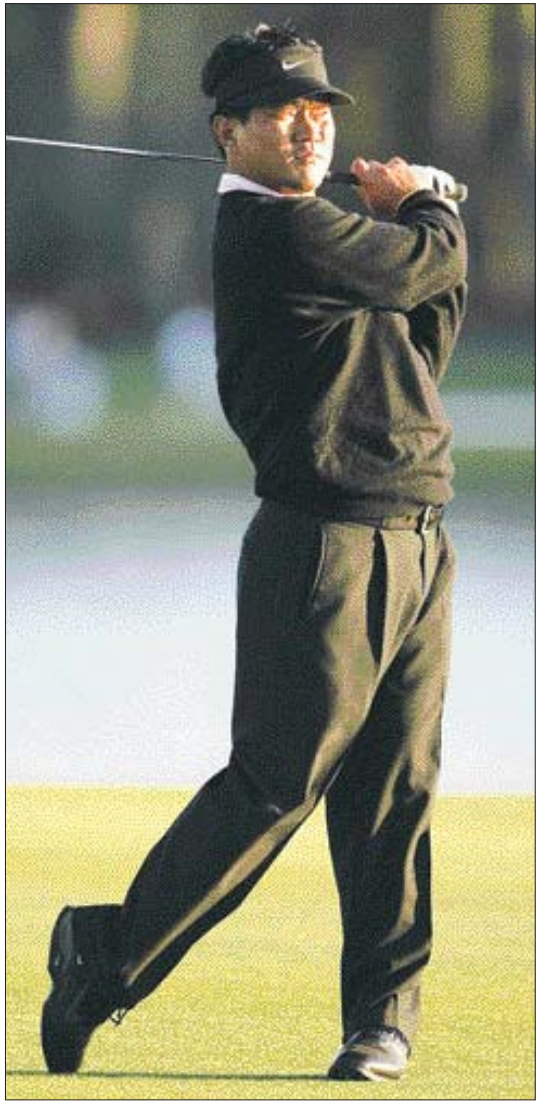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페덱스포인트 4위를 달리고 있는 최경주가 6일부터 열리는 플레이오프 3번째 대회인 BMW챔피언십 정상 도전에 나선다.

# ‘탱크’ 최경주, 선두 미켈슨 정조준

## 부상서 회복... 오늘 BMW챔피언십 출전 우승 땀 상금 1천만달러 플레이오프 1위

4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1위에 1천만 달러를 주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자의 영광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다.

플레이오프 포인팅랭킹 1위는 플레이오프 두번째 대회 도이체방크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미국)와 최종 라운드 맞대결 끝에 우승한 필 미켈슨(미국).

하지만 2위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에 고작 2천413포인트 앞서 있을 뿐이고 단 한 번만 플레이오프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거둔 우즈와 격차도 4천880포인트에 불과하다.

첫 대회인 바클레이스에서 컷오프를 당하고 두번째 대회에서 공동 60위라는 보잘 것 없는 성적을 낸 비제이 싱(인도)도 9천505포인트 차이로 6위를 달리고 있다.

포인팅랭킹 10위 이내에 포진한 선수라면 남은 2개 대회에서 우승 한 번이면

단숨에 플레이오프 1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이런 잠재적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과감하게 두번째 대회를 포기한 최경주는 미켈슨에 5천713포인트 뒤진 4위에 올라 있다.

6일(한국시간) 밤부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레멘트의 코그힐골프장(파71·7천326야드)에서 나올 동안 열리는 플레이오프 세번째 대회인 BMW 챔피언십은 최경주가 ‘1천만달러의 꿈’에 이르는 도약대가 될 전망이다. 최경주가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한다면 포인팅 순위 1위로 나설 수 있다.

최경주는 도이체방크챔피언십 기권을 불러왔던 허리 통증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판단이다. 피로가 누적됐다는 ‘경고’를 허리 통증을 통해 받은 최경주는 곧바로 대회를 접고 나흘 동

안 폭 쉬었다.

그러나 최경주의 우승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번 대회부터 출전 선수가 70명으로 줄어 들었고 이 대회 결과에 따라 30명으로 압축되는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 출전 여부가 결정되는 하위권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퍼팅 난조 때문에 고전하면서도 도이체방크챔피언십 준우

승을 차지한 우즈가 실전 감각을 되찾는다면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밖에 앞선 2개 대회에서 모두 ‘톱 10’에 든 스트리커와 로리 사바티니(남아프리카), 그리고 자신서 회복을 노리는 싱과 엘스, 짐 퓨릭(미국), 아담 스콧(호주) 등 강호들도 이번 대회에서 배수진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 남자들 “내가 초대 챔피언”

### LPGA 아칸소 챔피언십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코리안 시스터스가 시즌 다섯번째 우승 기회를 맞았다.

7일(이하 한국시간) 밤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골프장(파72·6천239야드)에서 열리는 아칸소 챔피언십은 올해 창설된 대회다.

올 시즌 여섯개의 우승컵을 수집하며 세계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이번 주 휴식을 취한다.

한국선수들은 두터운 선수층을 앞세워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오르며 시즌 다섯번째 우승컵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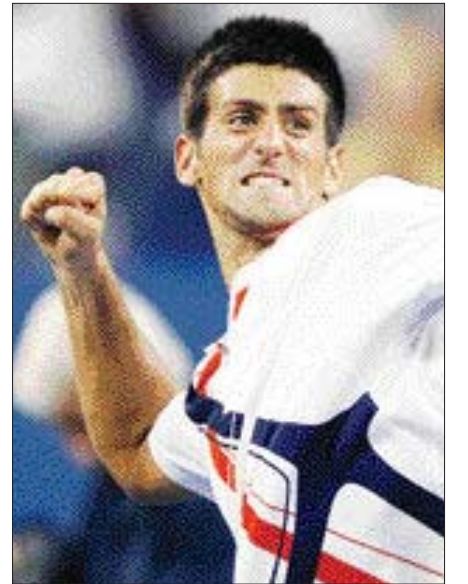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선수는 올 시즌 신인왕을 예약한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19)과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박인비(19), 김인경(19), 배경은(22·CJ)을 주축으로 한 신진 세력들.

이들은 톱 랭커들이 빠진 이번 대회에서 부담없이 샷을 날려 LPGA 투어 첫 승을 올리겠다고 버티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女 에닝 4강 선착 男 나달 8강 탈락

### US오픈 테니스 단식



5일 열린 US오픈 테니스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의 후안 모나코를 세트스코어 3-1로 완파한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환호하고 있다.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퀴스틴 에닝(벨기에)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 오픈(총상금 184억원) 단식 4강에 선착했다.

에닝은 5일(이하 한국시간) 뉴욕 플라시메도 빌리 진 킹 내셔널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여자단식 8강전에서 서리나 윌리엄스(9위·미국)를 2-0(7-6(7-3) 6-1)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 에닝은 엘레나 안코비치(3위·세르비아)-비너스 윌리엄스(14위·미국) 전 승자와 4강에서 맞붙게 됐다.

7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에닝은 안코비치에게는 7전 전승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윌리엄스에게는 1승7패로 ‘고양이 앞의 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남자단식에서는 세계랭킹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같은 나라의 다비드 페러(15위)에 1-3(7-6(7-3) 4-6 6-7(4-7) 2-6)로 저 8강 진출에 실패했다.

클레이코र्ट에서 열리는 프랑스오픈에서는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잘 나가는 나달은 이번 대회에서도 중도 탈락해 하드코트에서 약세를 펼쳐내지 못했다.

이밖에 세계랭킹 3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카를로스 모야(17위·스페인), 후안 이그나시오 펠라(22위·아르헨티나)가 8강에 합류해 남자부 8강 진출자들이 모두 가려졌다.

한편 키티폰 와치라마농(태국)과 짝을 이뤄 주니어 남자복식에 출전한 조승재(17·마포)는 1회전에서 그리고그르 드미트로프(불가리아)-바실 포스피실(캐나다) 조에 0-2(3-6 4-6)로 저 탈락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남자체조 남북단일팀 성사盼 “세계 3위는 무난”

남북한 협력체제가 공고한 체조는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면 남자 체조 단체전에서 세계 3위는 무난하다는 평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진행 중인 제40회 세계기체체조선수권대회를 참관하고 있는 김동민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는 5일(한국시간) 남자 단체전이 끝난 뒤 “단일팀이 성사된다면 내년 올림픽 단체전에서 동메달도 노려볼 만 하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차지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쉽게 누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자는 남북 모두 이번 대회에서 단체 12위 밖으로 밀려나 2008 베이징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 반면 남자는 한국이 이날 단체전 8위로 올림픽 티켓을 따내면서 단일팀 구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전무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일팀 구성 회의에서 체조는 걸림돌이 없어 가장 무난하게 ‘원 코리아’를 지향할 수 있다고 몇 차례 얘기했다”고 전한 뒤 “남쪽 선수 4명, 북쪽 선수 2명으로 단일팀을 이루면 세계 3위권으로 실력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측과도 이미 대표팀 구성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 남자배구 일본에 ‘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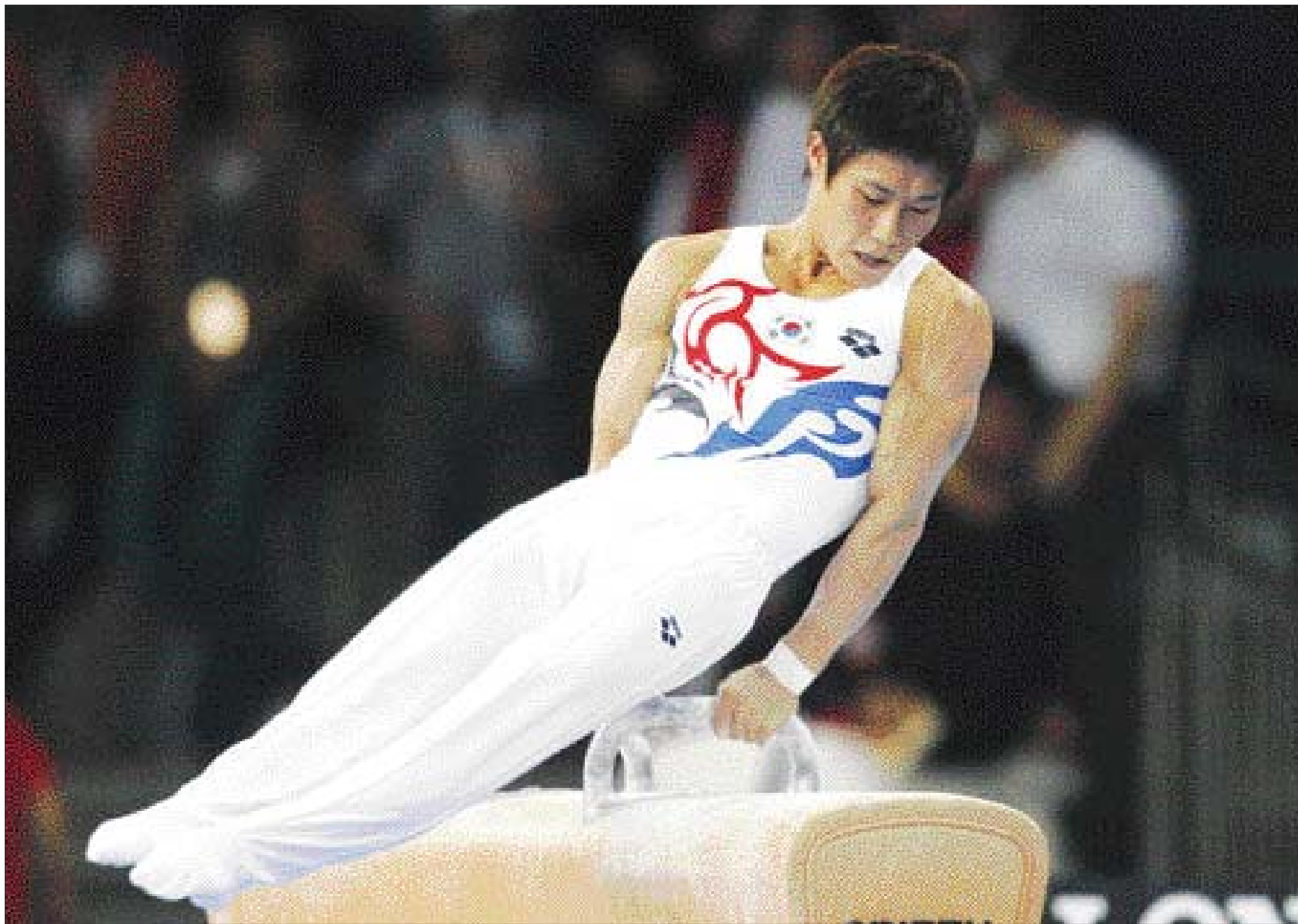
### 아시아 선수권대회 8강 여자팀은 인니 3-0 완파

한국 남자 배구가 제1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2005년 대회 챔피언인 ‘숙적’ 일본의 벽에 막혀 2연패에 빠졌고 올해 국제대회를 처음 치르는 여자 팀은 첫 승을 거뒀다.

류종탁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8강 라운드 3차전에서 이경수(LIG)와 문성민(경기대)이 분전했지만 고사카와 유우를 앞세운 일본에 1-3(16-25 24-26 25-21 19-25)으로 졌다.

이로써 한국은 1승 뒤 2연패를 기록해 1-8 위전에서 부활을 노리게 됐다. 현재 호주가 2승, 일본이 2승1패, 이란이 2패를 기록 중이다. 호주-이란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데 호주가 이기면 한국은 3위로 1-8위전에 나간다.

한편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를 3-0(25-17 25-19 25-11)으로 완파했다.



전남도청 김대은이 5일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 한스 마틴 솔라이어 할레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기체체조선수권대회 인마종목에서,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 남자체조 올림픽 단체전 5회 연속 진출

### 전남도청 김대은 개인 종합·평행봉 결선 올라

#### 세계기체체조선수권

전남도청 김대은 등 6명으로 구성된 한국 남자체조 대표팀이 제40회 세계기체체조선수권대회에서 5회 연속 올림픽 단체전 진출에 성공했다.

대표팀은 5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 한스 마틴 솔라이어 할레에서 끝난 단체전 예선에서 김지훈(서울시청)의 부상 투혼을 앞세워 마무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등 6종목 합계 360.400점으로 먼저 경기를 마

친 프랑스(359.900점)를 밀어내고 8위로 결선행 막차를 탔다.

이로써 상위 12개팀에 주어지는 내년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티켓을 따낸 대표팀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이후 5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김대은(전남도청), 양태영, 양태석, 유원철(이상 포스코건설), 김지훈(서울시청) 김수민(한국체대)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주최국 독일, 스페인 등과 예선 마지막 조에 나서 피를 말리는 접전을 치렀다.

각 종목에서 다섯 선수가 뛰어 가장 나쁜

성적을 제외한 4종목 합산 결과로 순위를 매기는 단체전에서 한국은 약세 종목 안마부터 시작해 강세 종목 평행봉, 철봉 등으로 이어지는 좋은 대진을 받았지만 안마에서 첫 주자 김대은을 필두로 양태영, 유원철 등 3명이 약속이나 한 듯 연기 도중 바닥을 짚으면서 힘겹게 출발했다.

두 번째 종목 링까지 부진했던 한국은 도마에서 62.875점을 얻어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올림픽 첫 금메달이 유력한 평행봉에서 63.650점을 획득, 막판까지 치열한 승부로 물고갔다.

2004 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대표팀 양대 축 김대은과 양태영이 강한 인상을 심지 못하는 사이 김지훈이

투혼을 발휘하며 대표팀 선전을 이끌었다.

국내 철봉 1인자인 김지훈은 그러나 주종목 철봉 연기 도중 공중 회전 후 바를 잡지 못해 떨어지면서 왼쪽 팔꿈치를 다쳤지만 오목이처럼 일어서 연기를 마쳤고 마무운동에서도 마지막 주자로 나서 14.850점을 얻어 내며 8강행에 큰 힘을 보탤었다.

이틀에 걸쳐 치러진 단체전 예선에서 중국이 374.275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일본(370.725점) 독일(364.350점)이 뒤를 이었다.

미국, 러시아, 루마니아, 스페인과 한국이 결선에 올랐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불가리아 등 총 12개국이 베이징행을 결정지었다.

한편 이날 성적을 바탕으로 김대은과 양태영이 개인 종합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종목별 결선에는 평행봉에서 유원철과 김대은이 8강 결선에 올라 메달을 바라보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편파판정 없으니... 한국 남자 핸드볼 UAE 대파 ‘2연승’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2008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예선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대파하고 2연승을 달성했다.

김태훈(하나은행)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스카이홀에서 펼쳐진 대회 풀디 3차전에서 UAE에 35-25, 10골 차 대승을 거뒀다.

2승1패를 기록한 한국은 6일 개최국 일본과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편파판정 덕을 톡톡히 보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짓는 쿠웨이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 내년 5월 열리는 국제핸드볼연맹(AHF) 자체예선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진 경기에서는 일본이 카타르를 36-25로 꺾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2승1패를 기록했고 카타르는 1승2패로 처졌다.

또 이 경기 결과에 따라 현재 3승1위 아시아핸드볼연맹(AHF) 회장국 쿠웨이트는 우승을 확정하며 올림픽 직행 티켓을 가져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